



토트넘이 22일(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유나이티드(맨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 손흥민(가운데)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 토트넘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3출루에 14호 2루타... 바람의 손자 나가신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이정후(26·사진)가 3번 출루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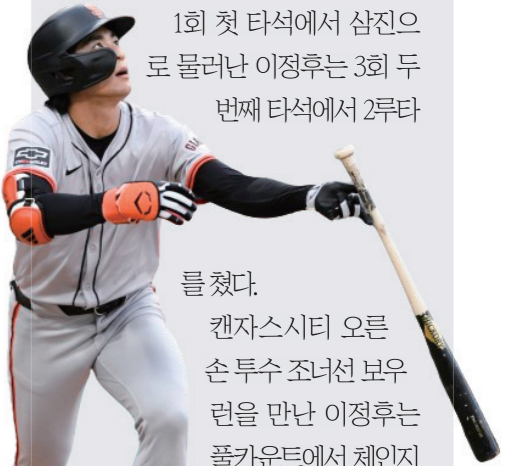
이정후는 22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75에서 0.276(192타수 53안타)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세 차례 출루에 성공하며 지난 17일 애슬레틱스전(5타수 2안타) 이후 다섯 만에 멀티 홈루(한 경기 2출루 이상)에 성공했다.

덕분에 이정후의 OPS(출루율+장타율)는 0.776에서 0.786으로 상승했다.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2루타



를 쳤다. 캔자스시티 오른손 투수 조너선 보우런을 만난 이정후는 볼카운트에서 체인지업을 공략, 우익수 방

## 15kg 트로피의 감격... 15시즌 걸렸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17년 무관의 굴레 벗고 정상 차지  
손흥민 유럽 진출 후 첫 삼페인  
후반 교체 출전, 마지막 퍼즐 맞춰

대리석 받침대에 은으로 큼직하게 만든 유로파리그(UEL) 우승 트로피의 무게는 15kg에 달한다.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 우승 트로피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위 유럽 클럽대항전인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트로피 '빅이어'는 7.5kg 정도다. 한 급 낮은 UEL 우승 트로피가 외려 두 배 무거운 셈이다.

22일(한국 시간) 토트넘 홋스퍼의 UEL 우승에 기여한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우승 세리머니의 중심에 섰다.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뛴 베테랑이자 에이스답게 후배들을 하나하나 단상으로 올려보낸 그는 시상자로 나선 알렉산드르 체페린 UEFA 회장을 가장 마지막에 마주했다. 체페린 회장이 건네는 목직판 우승 트로피를 활짝 웃으며 받아 든 손흥민은 동료들을 쪽으로 몸을 돌렸다.

트로피를 내린 채 다 함께 '발구르기를

**손흥민의 토트넘 주요 기록**

2016-2017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준우승
2018-20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우승
2020-2021시즌 리그컵	준우승
2024-2025시즌 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 (2015년~)

**토트넘 41년만의 우승, 손흥민 생애 첫 우승**

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태극기를 허리에 두른 손흥민은 더 기다리기에 지쳤다는 듯 번쩍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독일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해 잉글랜드 토트넘까지 유럽에서만 15시즌째를 보낸 손흥민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계를 대표하는 골잡이로 꼽힌다. 그런데도 우승과는 좀처럼 인연을 맺지 못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처음 몸담은 함부르크(독일)는 분데스리가 중하위권 클럽이어서 우승이 크게 기대되지 않았다. 2013-2014시즌부터 두 시즌을 뛴 레버쿠젠(독일)도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다.

손흥민은 2015-2016시즌 대도시 런던 연고의 빅클럽인 토트넘에 입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승의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한

토트넘의 부족한 '우승 DNA'를 손흥민 역시 실감해야 했다.

손흥민은 작년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우승 문턱에서 세 번 주저앉았다. 토트넘은 손흥민 입단 후 2번째 시즌인 2016-2017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준우승을 차지했다. 다만 우승팀 첼시에 승점 70나 뒤져 가까운 준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8-2019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치른 UCL 결승전에서 플라임 활약을 펼쳤지만 0-2 패배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토트넘은 2020-2021시즌 리그컵 결승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 0-1로 졌다.

이번 UEL은 손흥민이 우승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였다. 올 시즌 손흥민의 강점인 스피드가 하락하고 결정력까지 감소하면서 '에이징 커브'가 확인하게 느껴진 시즌이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후반 교체로 투입돼 20여 분간 열심히 수비에 가담하며 승리에 기여했고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재역 지음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재역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며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